



병오년,
넓은 말의 기운을 품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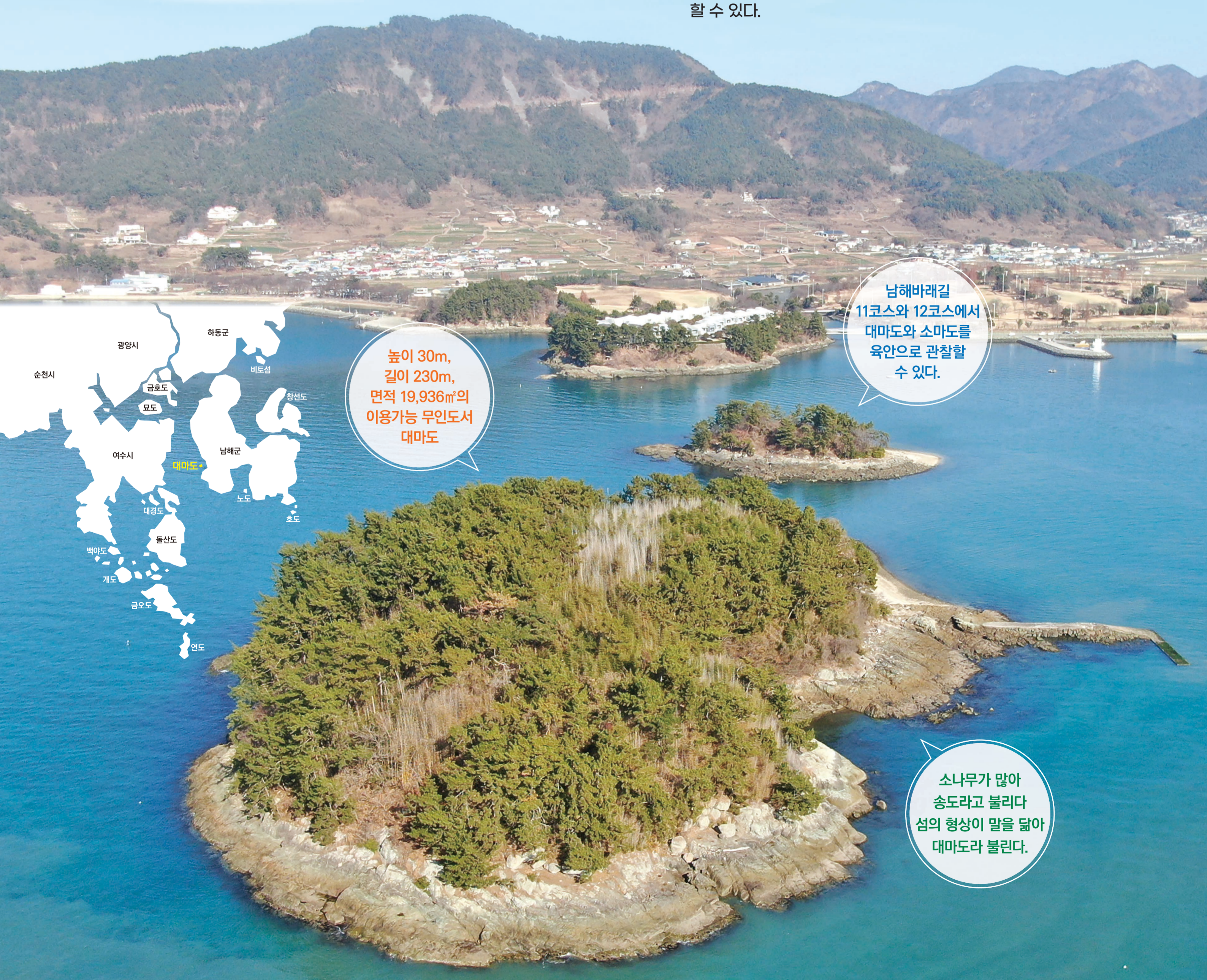
대마도

해양수산부는 2026년 2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에 위치한 이용가능무인도서인 '대마도(大馬島·큰말섬)'를 선정하였다.

대마도는 남해군 남서측 덕월항에서 서쪽으로 약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무인도서로 높이 약 30m, 길이 약 250m, 면적 19,936㎡ 규모이다. 과거에는 소나무가 많아 '송도'라고 불렸으나, 섬의 형상이 말을 닮아 현재는 대마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. 대마도와 덕월항 사이에는 대마도 절반 크기의 소마도가 있으며, 바닷물이 빠지면 두 섬 사이에 갯벌이 드러나 하나의 섬처럼 연결된 모습이 나타난다. 이로 인해 주변해역은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.

대마도는 곰솔과 대나무 군락을 비롯해 순비기나무, 느티나무, 사스레피나무 등 다양한 수목이 분포하고 있으며, 명석딸기, 머루, 갯메꽃, 기름나물 등 초본류도 자생하고 있다. 섬 남쪽 해안에는 해식애와 파식대지, 자갈 해변이 발달해 있고, 주로 모래와 자갈로 구성되어 있다.

대마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와 인근 관광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누리집 및 남해문화관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
높이 30m,
길이 230m,
면적 19,936㎡의
이용가능 무인도서
대마도

남해바래길
11코스과 12코스에서
대마도와 소마도를
육안으로 관찰할
수 있다.

소나무가 많아
송도라고 불리다
섬의 형상이 말을 닮아
대마도라 불린다.